

# 깨달음의 과정 통한 '삶의 본질찾기'

「물운대行」 펴낸 황동규씨

작곡가가 되고 싶었던 고등학교 시절, 단지 '음치'라는 이유로, 혹은 작곡가가 노래를 잘 부를 필요는 굳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순진함이 이유가 되어 시에 대한 관심을 시인에의 열망으로 바꾸어버린 황동규씨(53)는 20세기 후반의 한국詩史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손꼽힌다. 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50년대 말에 등단, 올해로 33년째에 접어든 그의 詩歷의 길이에 있지 않다. 그것은 눈, 얼음, 바다, 겨울 등의 이미지를 사용, 전후의 짙어진 삶과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인간의 내면을 비극적 자세로 응시하던 초기시로부터 개인주의적 감성과 자아의 문제에 몰입해 있던 60년대를 거쳐 유신 통치의 폭압적 상황하에서는 강렬한 현실의식을 표출하는 등 새로운 시집을 낼 때마다 그가 보여주었던 시적 변모가 우리 시의 흐름을 앞서 예감케 한 것이었다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런 그가 최근 시집 「물운대行」(문학과지성사)을 펴냈다. 지난 86년에 나왔던 「악어를 조심하라구?」 이후 4년만에 나온 이번 시집은 신작시집으로는 여섯번째. 표제작 「물운대行」 외에 「관악일지 1-4」 「비린사랑노래 1-6」 「풍장 17-34」 등 연작시들과 평론가 김현을 추모하는 시 등 총 70여편을 수록하고 있는 이번 시집은 그의 시에 있어서 또 한차례의 변화를 드러내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상의 매 순간을 통찰력을 가지고 직시하다 보면 언뜻언뜻 발견되는 삶의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적인 진실을 정적하게 드러냄으로써 삶의 밑뿌리까지 내려가보고 싶었습니다”

‘삶의 본질찾기’라는 다소 관념적이고 무거운 주제 때문에 신비주의나 정신주의로 침몰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법도 한 이 시집을 통해 시인이 보여주는 행동과 장면들은 그러나 지극히 구체적이고 일상적이다.

가령 그는 ‘반포치킨에 나가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군번을 잊어버려’ 당황하기도 하며 문득 ‘무반주 떠돌이’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 외에도 그가 삶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그의 눈과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있다. अपना, 개모밀덩굴로부터 물벼룩, 개구리 등속. 그리고 아내나 친구, 이삿짐센터의 60대 노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은 시인 특유의 ‘집짓기식 구조’에 의해 보다 입체적인 생동감을 얻는다. 한편 한편의 시가 자체적으로 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열개를 이루어 시집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구조를 이루는 형식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순간적인 진실의 발견이 거듭될수록 그 깨달음을 자연-자아-이웃으로 심화, 확대시켜나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자의 변화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시를 읽는 독자도 그 변화에 순간적으로나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가 의도했던 역동성과 생명력은 부사와 동사의 다양한 활용과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는 명사형 종결어미의 두드러짐에서도 찾을 수

“시인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자의 변화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시를 읽는 독자도 그 변화에 순간적으로나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황동규씨

있다.

“방금 올챙이에서 땅에 기어오른 개구리가 / 초점 맞추듯 / 네 다리 움츠렸다. / (심상치 않은 그의 거동) / 뛰었다, 새 공간 확 달려들어 / 숨 일순 정지, 황홀!” (“뛰었다, 조그만 황홀” 中)

이러한 역동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그가 얻어낸 삶의 실체는 ‘환한 빛’의 이미지로 표현되곤 하는데 그것의 내용을 그는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기심과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주는 맑고 투명한 희열과 그러한 경험을 거듭하면서 체득하게 되는 ‘공생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까”

아직도 펜을 들면 시가 나아가야 할 앞길은 막막하기만 하다는 그는 자신의 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심경하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장년의 나이를 살아가는 그의 생활에 시는 이미 커다란 부분으로 들어 앉아버린 까닭이다. 쓰고 찢고 남는 시가 일정한 분량이 되면 또 한편의 시집을 펴낼 것이라는 것과 지금까지의 시와 산문, 시론들을 모아 전집을 펴내겠다는 것이 그가 지닌 계획의 전부이다.

—박남정 기자

## 만화홍보그룹



만화홍보  
**현대기획**  
TEL. 335-3357

■ 하는일 : 각종 만화홍보책자/기업문화 상품광고/카타로그·팜프렛/정치홍보물/출판물 컷 등

## 만화로 익히는 직장인의 예절



4×6배판 160쪽 본문 2도인쇄 값5,000원  
● 단체구입시 표지에 상호, 회사로고 넣어드립니다  
● 단체주문, 책문의 (02) 323-4483  
(교보문고, 을지서적, 종로서적 및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총판: 진명서적 272-5871)

직장인의 고운 맵시  
바른말씨는 곧 그 회사의  
품격이며 얼굴입니다!!

### 주요내용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 / 기본자세와 동작 바르고 요령있는 대화예절 / 교양있는 직장인의 매너 / 친절하고 세련된 전화응대 / 신뢰받고 친근감 있는 고객응대 / 옷차림 몸치장 요령 / 요령있는 출장, 해외여행 / 현대인의 식사예절 / 세계의 매너와 에티켓 / 호칭 인사예절 / 스포츠 매너 / 공공예절 / 경조사 / VIP에 대한 예절

### 도서출판

**현대미디어**  
TEL. 323-4483 338-2779  
FAX. 334-7958